



한국후지제록스, 아이젠 150 프레스·아이젠 4 출시 분당 150·120매 출력...인쇄품질·생산성·수익성 개선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우에노 야스아키, www.fujixerox.co.kr)는 고속 컬러 디지털 인쇄기 ‘아이젠 150 프레스(iGen 150 Press)’와 ‘아이젠 4 EXP(iGen4 EXP)’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구립 12일 서울 흥은동 그랜드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후지제록스의 고객과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아이젠 프레스는 카탈로그, 포토북, 브로슈어, 트랜스프로모 등 다양한 사업에 적합한 제품으로, 생산성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인쇄물을 구현해 수익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날 행사에서는 아이젠 4 EXP를 도입한 (주)해내리 송영덕 대표이사와 아이젠 150 프레스를 도입한 소다디자인프린팅(주) 안영철 대표이사가 후지제록스의 제품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영상이 상영됐다. 송영덕 대표이사는 영상을 통해 “디지털 인쇄 기 도입을 고려하며 모든 제품들을 파악해 본 결과 비용 대비 아이젠4 EXP의 활용도가 제일 뛰어나고 다른 제품에 비해 문제점이 가장

적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최대 660mm 사이즈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할 수 있고 토너 방식에서 최고의 이미지 품질을 구현하는 것은 물론, 비용 또한 타사 제품보다 저렴하다”고 말했다.

소다디자인프린팅(주) 안영철 대표이사는 “아이젠 150 프레스 도입을 계기로 그동안 사 이즈 제한 때문에 출력할 수 없었던 날개 달린 표지, 포스터 등 국3절까지의 인쇄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A4 3 단 리플렛, 국3절 크기의 맞춤형 소량 캘린더 등 다양한 디자인 상품 개발에도 전력을 다해 POD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인쇄시장 연평균 24% 성장

이날 행사에서 후지제록스 아태본부의 마틴 크로널드(Martin Cronwald)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매니저는 ‘성공적인 디지털 인쇄 사업을 위한 방법’ 주제 발표에서 “인쇄에 있어 출력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5%에 불과하고, 인건비, 유통비, 물류비, 폐기 비용 등 기타 비용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컬러 디지털 인쇄 시장은 연평균 24%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2021년 출력량은 1.2조 페이지를 넘어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미래의 수익 창출은 결국 컬러 디지털 인쇄에서 나을 것이며, 인쇄 사업의 성공을 위

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지난 3년간 전세계에서 800대 이상 판매된 아이젠4 EXP, 아이젠 150 프레스를 포함해 후지제록스는 고객의 출력량 확대, 비용 절감, 사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혁진 한국후지제록스 PS마케팅팀 매니저와 권양진 PS영업추진부장이 아이젠 프레스의 특장점에 대해 소개했으며, 태산애 드컵(대표 이강훈)과 카피코(대표 정민)의 사인오프 행사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생산성·고품질·다양한 용지 수용

‘아이젠 150 프레스(iGen 150 Press)’와 ‘아이젠 4 EXP(iGen4 EXP)’는 각각 분당 150매, 120매의 고속 인쇄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양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고품질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매트 드라

이 잉크, 도트와 라인 방식을 결합한 스크리닝, 자동으로 이미지 품질을 보정하는 인라인 스펙트로포토미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최대 660mm의 용지 사이즈, 중량 350g/m²까지 지원한다. 펠지, 코팅지 등 다양한 특수 용지 활용이 가능해 명함, 청첩장, 초대장 등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후지제록스는 아이젠 프레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기의 상태에 대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를 미리 감지하고 발생 시 원격 서비스 또는 엔지니어 방문을 통해 신속히 해결한다.

양희강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2013년 일반 인쇄용지 생산량이 특수지에 대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는 오프셋의 대량



인사말을 하는 한국후지제록스
양희강 영업본부장



주제 발표를 하는 후지제록스
마틴 크로크 매니저

생산 물량이 단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않으면 기업 유지와 매출 성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후지제록스는 이러한 시대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항상 연구하고 준비한다”며 “한국후지제록스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이젠 150 프레스



인쇄인들이 아이젠 프레스 샘플을 보고 있다.



아이젠 프레스로 작업한 다양한 개인화 인쇄물